

재일 제주인의 세계(2)

—小田 實의 「아버지」를 밟다—

김영화*

1

일본 작가인 오다 마코도(小田 實: 1932~)의 소설 「아버지를 밟다」는 이렇게 시작된다.

“나는 생으로(生으로; 火葬당하지 않고) 돌아간다.”라고 아버지는 나에게 말했다. 건강했을 때의 말이다. 그 말은 죽은 후 화장하는 것을 꺼리는 아버지의 뜻을 강하게 내비치는 것인지, 아니면 사위인 내게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인지 확실치 않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

죽은 후에는 관에 넣어서 비행기로 운반한다. 아버지에 의하면 일본 항공기는 관을 실어 주지 않지만 한국 항공기는 실어준다고 했다. 아버지와 같은 고향 사람도 몇 사람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그들이나 아버지나 “화장하지 않은 채 돌아간다.”는 곳은 제주도. 그곳은 토장(土葬)이다. 선조 대대로 묻혀 있는 무덤 곁에 묻히게 된다.

(의역했음. 『新潮』 1997년 6월호, 258쪽.)

이 소설의 ‘아버지’는 재일 교포 1세대. 1911년 생인 그는 열 일곱 살인 1927년 무렵 일본에 건너가 1995년까지 60여 년을 일본에서 살았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소년시절에 건너가 60여 년을 일본에 살았으면 일본문화의 세례도 크게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다 보면 반(半)일본인이 되었을 것이고, 일본문화가 몸에 배었음직하다.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인생의 마지막을 고향으로 돌아가 선조의 무덤 아래 묻히겠다는 것이다, 화장해서 간편하게 고향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굳이 화장당하지 않고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일본에 60여 년을 살았어도 제주인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제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제주문화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최근에 들어서서 이런 문제를 화두로 꺼내는 일이 적지 않다. 그것은 제주인의 정체성과 제주문화의 정체성이 위기에 처했거나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지 모른다.

이 소설은 개화의 세례를 받기 전에 제주도를 떠난 재일 교포 1세의 일생을 다룬 소설이다. 주인공의 일생을 추적하면 제주인은 누구이며, 제주문화의 정체성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한국인의 눈이 아닌 외국인의 눈에 비친 제주인과 제주문화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이질사회와 이질문화 속에 살고 있는 재일 교포를 등장시켜 그의 일생을 다룬 소설이다. 1997년 6월 『新潮』에 발표된 소설로,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나 제24회 가와바다 야스나리(川端康成) 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2

이 소설의 주인공 '아버지'는 언제, 왜 일본에 건너갔을까.

'아버지'는 60여 년 전 열 일곱 살 때 제주도로부터 배를 타고 일본에 건너왔다. 섬에서는 일거리가 없었고, 먹고 살아가기 힘들었다. 그런 사정

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도 제주도로부터 일자리를 찾아 일본에 건너왔다.

잠녀(해녀)였던 어머니는 시고꾸(四國)의 도쿠시마(德島)에 해조류(海藻類)를 캐러 왔다가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그 때 잠녀들을 실어 나르는 배에서 노젓는 일을 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들은 결혼했다. 아버지는 열 아홉 살, 어머니는 스무 살이었다. 일 년 연상의 누님 같은 아내였다. 결혼 후 그들은 일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세계 제2차 대전을 고베(新戶)에서 맞았고, 그들은 거기서 전중(戰中), 전후를 보내고 는 정착했다. 그로부터 1995년 1월 17일 고베 대지진이 일어날 때까지 50여 년을 거기서 쫓 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날씨는 다르지만 배로 제주도로부터 오사카(大阪)까지 왔다. (중략) 아버지에게 있어서 조선은 제주도다. 서울은 아버지의 생애 85년 동안 한번도 가 본 적이 없다. 부산은 제주행 항공기를 갈아 탈 때 공항을 통과했지만 시내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버스로 부산 시내를 구경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부추겼지만 “오타군. 나는 특별히 부산 시내에 볼일이 없어.” 하고 아버지는 말했다. (258~259쪽)

이 소설의 주인공, ‘아버지’는 1911년 생, 어머니는 1910년 생이다. 그들은 10대 후반 일본에 건너갔다. 무학에다 문맹인 그들의 목표는 돈 버는 일이었다.

제주도는 조선시대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흉년이 들면 굶주리기 일수였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단편적인 기록이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의 주류는 빈궁이었고, 그것이 제주도민을 괴롭혔다.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궁핍해졌다. 토지조사사업 등으로 농토를 잃은 농민들이 나오고, 제주도 근해까지 쳐들어 온 일본어선들 때문에 제주도민의 어획량은 줄어들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 가운데는 제주도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가운데 오사카는 대표적인 곳이었다.

일본에 건너갔지만 특별히 가진 기술도 없었고 무학(無學)에다 문맹

인 그들이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밀바다 노동이었다. 아버지도 잠녀들 배의 노젓기, 공사판 막벌이꾼, 공원, 행상, 암거래상을 했다. 그러다가 제2차대전 후 고베에 정착하면서 기계 한 대를 설치해 놓고 고무로 된 신을 만들어 팔았다. 주로 일본의 아오모리(靑森) 등 동북지방에 가서 팔아 돈을 벌었다. 동북지방의 농부들에게는 논이나 밭에서 일하는데 고무장화 등 고무로 된 신이 절대 필요했다. 때로는 장사를 하다가 같은 동포에게 속아 돈을 떼이기도 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버지는 인생에 대해 달관하는 모습을 지낸다.

이 소설의 아버지는 제일 교포 일세다. 그들의 삶은 가지가지이지만 대체로 처음에는 죽도록 고생을 하지만 차차 안정을 얻는다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립정신이 강한 제주도 사람들의 삶의 궤적이 여기에 드러난다.

3

‘아버지’는 일곱 명의 딸을 두었다. 아마 아들을 얻으려다 딸들을 많이 둔 것일 것이다. 그것이 과거의 제주도 사람들의 경향이기도 하고, 한국인 일반의 경향이기도 하다. 그래서 고향에는 양자를 두었다. 살아 있을 때 부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조상들의 제사를 모시고, 묘에 벌초할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고향에는 양아들, 일본에는 딸 여섯, 북한에도 딸 하나가 가 있다. 아버지를 정점으로 가족이 이렇게 삼각으로 분산된 것은 조국의 분단상황의 소산이다.

아버지에게는 일곱 명의 딸이 있다. 딸 하나는 북송되어 북한에 있고, 나머지 여섯은 일본에 있는데, 오사카, 도쿄, 니시야마 등에 흩어져 각각 가정을 이루었다. (중략) 일본에 살고 있는 딸들도 같은 일본에 있으면서

도 정치적 귀속은 달랐다. 「在日朝鮮人」, 「在日韓國人」이 반반, 아버지 어머니는 「在日韓國人」이다. 이 이상한 일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원래 「남북분단」은 불합리한 것이고, 상식적인 사태가 아니다. 따라서 합리적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을 논한다는 것은 '나'(화자=인용자)마저 이상해진다. 언젠가 아버지는 막내 사위인 나에게 “오타군, 나는 김씨나 박씨가 태어나기 전부터 조선인이었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김씨는 물론 북의 김일성, 박씨는 남의 박정희다. 두 사람의 살아 있을 때의 이야기다. (259쪽)

재일 제주인은 일본에 살면서도 조국의 분단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족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분단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뜻한다. 그들이 왜 남·북 이데올로기를 다르게 선택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단된 조국의 영향인 것만은 틀림없다. 외국에 나가서도 남과 북으로 한 가족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일본에 거주하면서도 모국—제주도와 연계돼 있다. 이런 연계가 그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 소설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조선'은 곧 '제주도'다. 그에게 한반도(韓本土)는 마치 외국처럼 생각한다. 따라서 분단상황은 제주도의 4·3 사건과 관계가 있다. 4·3사건 때 제주도를 떠나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은 대개가 북의 이데올로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2차대전 후 조총련에 속했던 사람들은 저절로 북을 선택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딸들은 그들 스스로 이데올로기를 선택했다기보다 그녀의 남편들의 선택을 그대로 따랐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4

'아버지'는 고베 지진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폐암에 걸렸다. 진찰 결

과 앞으로 반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루해 지자 하룻밤 집에 돌아가 쉬기로 허락 받고 집에 돌아 온 날 지진이 일어났다. 한순간에 5천 여명이 생명을 빼앗은 대지진이 일어난 날 아버지의 집도 부서졌다. 그 때 집에는 노부부밖에 없었다. 망연자실하여 뉘를 잃고 앉아 있던 노부부를 이웃 사람들이 피난소로 데려갔다. 다시 병원에 입원하려 했지만 지진으로 사상자가 병원에 몰려들어 병원에는 다시 입원할 수가 없었다. 폐암에 걸린 80대의 노인이 초등학교 교실인 피난소에서 생활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그러나 딸들은 저마다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어 당장 손을 뻗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런 가운데 같은 고베에 살고 있는 사위가 자전거로 피난소에 찾아가 그들을 구출하고서는 자동차로 8시간이나 걸리는 오사카에 살고 있는 딸네 집으로 모셔갔다. 그리고는 양자가 있는 제주도로 아버지 어머니를 보냈다. 아버지는 평소의 뜻대로 죽어서 화장당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온 셈이다.

양자의 집에 도착한 아버지는 잠시 기운을 차리는 듯했으나 닷새 후에 돌아가셨고, 일본에 있는 딸들에게 알려졌다. 지진이 일어난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때였다.

장례에 우리들 일가 세 사람은 제주도까지 건너갔다. 복송된 딸은 눈외로 치더라도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정치적 귀속 문제로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하지 못한 몇 명의 딸도 있었다. 그렇지만 북에 있는 딸과 일본에 있는 딸들은 전화로 아버지의 사망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 대화에 제주도로부터 아버지의 장례를 떠맡은 양자도 끼어 들었다. 양자는 처음으로 북의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남북대화」가 되었다. 모두가 울었다.(265쪽)

재일 교포 1세의 삶이 마감되었을 때 그는 일본인이거나 재일 동포가 아니라 제주인으로 죽었고, 제주도 방식으로 지하에 들어갔다. 그런 죽음 앞에서도 정치적 이유로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

이 역사적 현실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의 의식은 제주인이다. 그리고 제주문화를 몸에 지닌 채 살다가 죽었다. 그의 정체성을 굳이 따진다면 그는 제주인이다. 다음 인용문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아버지는 독특한 일본어로 말한다. 어머니의 말도 독특한 것이지만 그녀의 언어는 일본어—그것은 제주도의 방언이 섞여있는 것으로 어머니의 언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령 「책상과 의자」를 책상은 조선어, 아니 제주도의 방언, 의자는 일본어였다. 일본인인 나와 이야기할 때 어머니는 물론 일본어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은 조선어—제주도의 방언이다. 한국인과 이야기할 때는 어머니는 조선어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반은 일본어—일본어와 한국어는 문법체계가 같은 것이지만 「어머니의 말」이 형성된 것이다.(262쪽)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言語]은 그들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히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는 일본 쪽보다는 제주도 쪽이다. 제주인으로 살다가 제주인으로 죽으려는 자세가 간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일본에 60여 년을 살고 있으면서도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도 아직 그들의 정체성에 제주도적 요소가 짙게 남아 있다는 것이 된다. 학교에서 공부해본 경험이 전혀 없고, 문맹인 그들은 생활을 위해서 일본에 건너갔고 생활을 위해서 일본어를 습득했지만 그것이 완벽한 것이 되지 못한 것이다.

5

이 소설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일 교포 1세는 일본에 살면서도 제주인으로 살았고, 제주인으로 죽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제주인의 정체성과 제주문화의 정체성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아버지의 삶이 그런 예가 될 것이다. 지금 제주도에서 점차 사라져 가는 제주어(제주 방언)가 오히려 일본 오사카의 조선시장에서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제주인의 정체성과 제주 문화의 정체성은 무학(無學)의 재일 교포 1세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 방언이 머지 않아 일상의 회화(會話)에서 사라지는 것과 더불어 제주도 문화의 독자성도 사라질 것이다. 그와 더불어 제주인의 정체성도 변질될 것이다. 그것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이다.

둘째, 이 소설의 화자인 일본인과 주인공과의 거리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일본인과 제주인이라는 점에서 거리가 멀다. 그러나 사위와 장인이라는 점에서는 거리가 가깝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인의 눈과 사위의 눈으로 한 인간의 생애를 관찰하고 인생의 의미를 묻고 있다.

이 소설에서 우리들 독자에게 울려오는 것은 화자와 주인공과의 관계다. 화자인 '나'와 장인인 '아버지' 사이에는 남다른 친근감이 있는데, 소설에는 이렇게 나온다.

그 친근감은 장인과 사위라는 가족 관계에서 오는 친근감이 결코 아니다. 좀더 자유로운, 그래서 대등·평등한 인간관계와 연결된 것으로 거기에서 자연히 우러나온 친근감. 나는 나와 결혼한 그의 막내딸의 일을 「인생의 동반자」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버지도 다른 의미로 「인생의 동반자」였다.(263쪽)

한 쪽은 일본인, 다른 쪽은 제주인, 한 쪽은 지식인, 다른 쪽은 무학의 노동자, 이렇게 커다란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인간 관계를 원점(原點)에서 바라볼 줄 아는 작가의 눈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때문에 장사(葬事)를 치를 때 사위가 봉분 위에 올라가 힘껏 아버지를 밟

아도 어색함이 없는 것이다.

이윽고 봉분을 쌓기 시작하고 흙을 갖다 부을 때 말없이 흙을 밟기 시작했다. 나도 밟았다. 「인생의 동반자」도 밟았다. 내 딸, 아버지의 외손녀도 밟았다. 외손녀는 꺾꺾꺾 뛰면서 전신에 힘을 주어 밟았다. 그러나 나는 내 딸에게 말했다. “좀더 세게 밟아.” 나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 나도 강하게 밟았다. 내 딸도 다시 세게 뛰면서 밟았다. “오타군, 그렇게 세게 밟지마. 나는 아프단 말이야. 내 혼은 어디 날아가지 않아. 고베의 나가타 집도 이미 부서져 버렸는 걸.” 내 발 밑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266쪽)

이 대목을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것은 한 인간이 생을 마감한 데서 오는 엄숙함도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화자인 나와 주인공 아버지와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름다움이다.